

일본 전문도서관의 현황과 미래

:: 아오야기 에이지(靑柳 英治)_메이지[明治] 대학

본고는 2014년 6월 12일 한국전문도서관협회(이하, KSLA) 학술세미나의 발표 내용으로 일본 전문도서관의 현황과 향후 방향성을 제안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일본 전문도서관의 배경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전문도서관협회회 (이하, JSLA)가 발간하는 『전문정보기관 총람』(이하, 『총람』)에 게재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재, 자료·정보, 예산, 홍보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2011년도에 실시한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의 전문도서관 사서가 수행하는 직무 내용의 일부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일본 전문도서관의 향후 방향성을 제안한다.

1. 일본 전문도서관의 배경

일본의 전문도서관에는 민간 기업 및 단체의 정보센터, 국가 기관의 도서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도서관 등 많은 종류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전문도서관은 모기관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 내 도서관으로 주제 범위도 모

기관이 관계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에서는 공공도서관을 규정한 법률로 ‘도서관법’이 있다. 이 법률에서는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전문 직원을 ‘사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도서관 전체를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관별로 별도의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 도서관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도서관 사서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전문도서관은 현재 모(母)기관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주요인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거론된다. 하나는 침체 중인 경제 상황이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전문도서관의 예산이나 인원이 삭감대상이 되기 쉽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이나 네트워크 계통과 관련된 미디어의 발전이다. 이들이 급속하게 보급됨으로 이용자 스스로 정보에 액세스하는 것이 쉬워져서 전문도서관을 통해 자료나 정보를 입수하는 일이 적어졌다. 이러한 영향으로 정보센터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전문도서관의 존재 기반은 모기관의 방침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도서관은 모기관에 봉사하는 존재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문도서관이 모기관의 사업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보제공 서비스의 담당자는 말할 것도 없이 전문도서관 사서이다. 그래서 전문도서관 사서의 전문화 정도가 일본 전문도서관의 과제로 되어 있다.

일본 전문도서관 사서의 인재 육성은 대학에서의 양성과 취업 후 교육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에서의 양성은 '사서' 양성 과정과, 도서관·정보학을 배우는 전문과정과 연관된 과목의 일부로 개강되어 왔다. 즉 전문도서관 사서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다. 취직 후의 교육훈련은 주로 JSLA가 실시하는 연수회와 세미나, 기타 도서관 견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도서관 주제 분야 중 보건학(health science) 분야의 도서관 협회는 전문도서관 사서의 지식과 기술 향상을 목표로 오랫동안 연수회와 연구회를 개최해 왔다. 최근에는 그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자격제도를 정비했다.

2. 『전문정보기관총람』에서 보는 일본의 전문도서관

2.1 『전문정보기관총람』이란

『총람』은 1969년에 JSLA에 의해 발간되었다. 『총람』의 발간은 미국 전문도서관협회(이하, SLA)로부터 『Directory of Special Libraries』(SLA 발간)를 기증 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다. 3년 단위로 발간되는 총람은 일본의 전문도서관을 총 망라해서 수록한

디렉터리이고, 2012년판이 최신판으로 15번째 발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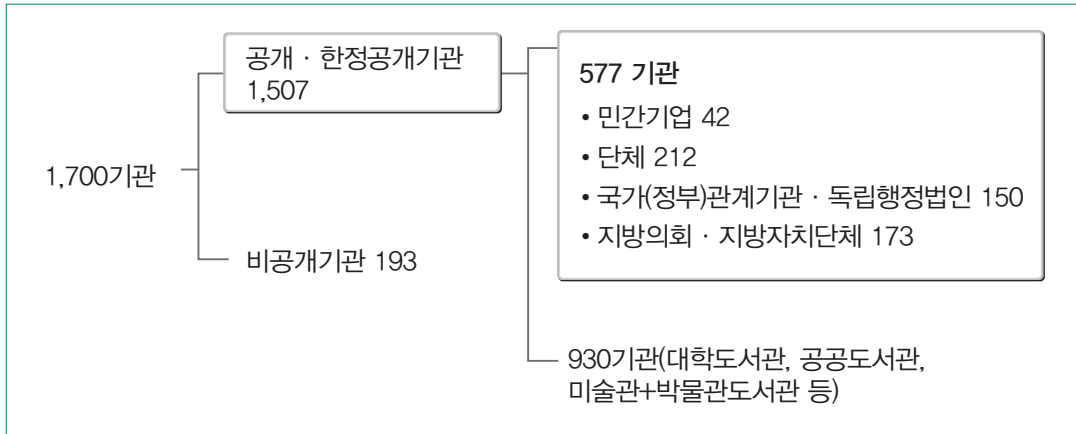
『총람』은 아래의 기관에 조사표를 배포하고, 회신한 기관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1) 특정 분야의 자료를 중점적으로 수집·정리·보관하고, 제한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기관
- (2) 조직(관공서, 단체, 공문서관, 민간기업, 대학, 학협회, 미술관, 박물관, 조사연구기관 등) 내의 자료·정보부문(도서관, 자료실, 정보센터 등)

2.2 내용 소개

2012년판에는 1,700개의 전문도서관이 수록되어 있다. <표 1>은 1,700개 기관의 내역을 기관 종류별로 나타낸 것이다. 공개나 한정공개를 하고 있는 기관이 1,507개 기관(88.6%)이다. 이 중 일본에서는 전형적인 전문도서관으로 간주되는 민간기업의 정보센터가 42개 기관, 단체의 도서실이 212개 기관, 국가기관의 도서관이 150개 기관, 지방의 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실이 173개 기관으로 총 577개 기관(38.3%)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930개 기관(61.7%)은 대학의 학부나 연구기관의 도서실, 미술관이나 박물관 내에 있는 도서실 등이다. 전문도서관의 특징으로는 ① 조직 내 도서관일 것, ② 전문 주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학부나 연구기관의 도서실은 이 2가지 특징을 충족시킨다고 간주되므로 일본에서는 '전문도서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학의 중앙도서관은 '대학도서관'으로 분류한다.

표 1 ▶ 『총람』 2012년판의 수록 기관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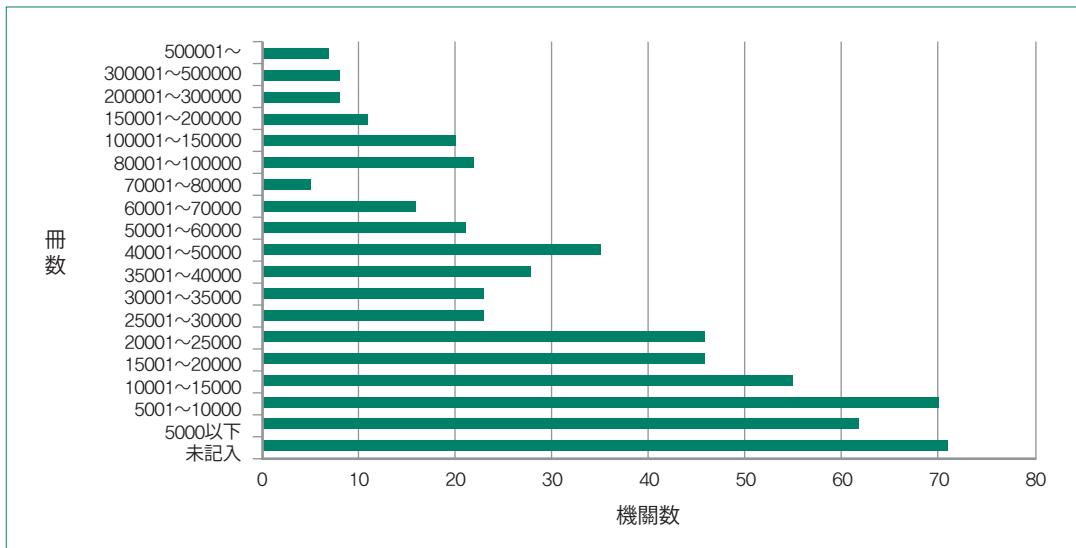
위의 <표 1>은 『총람』에 수록된 577개의 일본 전문도서관 현황을 보여주는 데이터 들이다.

첫째, 인력에 대한 부분이다. 고용형태별 평균 직원 수는 전임직원이 4.4명, 겸임직원이 1.8명, 상시 고용되어 있는 시간제 근로자나 인재파견은 1.9

명,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시간제 근로자나 인재파견은 0.7명이다. 전체적으로 전임직원이 1명인 기관은 138개 (23.9%), 전임 직원이 0명인 기관이 127개(22%)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전문도서관은 1인 사서 도서관의 비율이 높다.

둘째, 소장도서와 구독 데이터베이스에 대

그림 1 ▶ 소장도서의 권수 및 기관 수



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림 1>은 도서관 장서 수와 기관 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장서 수는 65,681권이다. 장서 수가 10,000권 이하인 기관이 132개(22.9%), 10,001권부터 30,000권까지인 기관이 170개(29.5%), 따라서 30,000권 이하인 기관이 302개(52.3%)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전문도서관은 대체로 소규모라고 할 수 있다. <표 2>는 계약 수가 많은 순서대로 데이터베이스 종류를 나타낸 것이다(복수 응답 가능). 신문이나 논문의 전문에 접속·접근할 수 있는 것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지 않은 기관이 171개 기관(29.6%)이다.

셋째, 자료구입 비용에 대한 부분이다. <그림 2>는 연간 자료와 데이터 구입비용을 나타낸 것

이다. 50만 엔 미만인 기관이 136개(23.6%)로 가장 많다. 312개 기관(54.1%)이 연간 300만 엔 미만으로 자료와 데이터를 구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용자에 대한 홍보나 안내 실시 현황과 방법에 대한 부분이다. <표 3>은 이용자에 대한 기관의 홍보나 안내 실시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홍보나 안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473개 기관(82%)으로 대다수의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느 기관이든 실시율은 높지만, 특히 국가와 단체 도서관 등에서의 실시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는 홍보나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4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방법이 많은 순으로 나타낸 것이다(복수 응답 가능). 표의 비율은

표 2 ▶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상위)(복수 응답 가능) n=577

데이터베이스	기관 수/비율(%)
닛케이텔레콤(日経テレコン)	62/10.7
Science Direct	58/10.1
J Dream III	55/9.5
Springer	46/8.0
계약하고 있지 않음	171/29.6

그림 2 ▶ 연간 자료·데이터 구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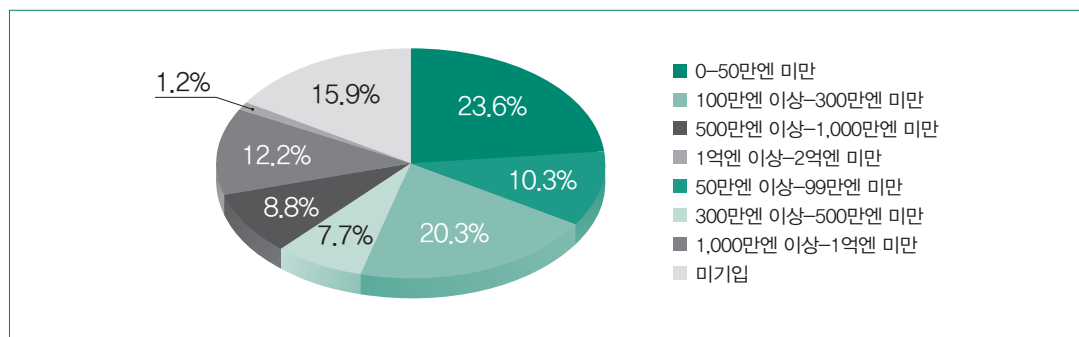


표 3 ▶ 홍보·안내의 실시 상황(왼쪽:기관 수, 오른쪽:%) n=577

상황	전체	단체	지방	국가	민간
실시	473/82.0	178/84.0	129/74.6	135/90.0	31/73.8
미실시	91/15.8	31/14.6	40/23.1	11/7.3	9/21.4
미기입	13/2.2	3/1.4	4/2.3	4/2.7	2/4.8

표 4 ▶ 홍보·안내 방법(상위)(복수 응답 가능)(왼쪽:기관 수, 오른쪽:%) n=473

방법	전체	단체	지방	국가	민간
HP·인트라넷	425/89.6	166/93.3	105/81.4	126/93.3	28/90.3
팜플릿·전단지	233/49.3	90/50.6	66/51.2	61/45.2	16/51.6
안내·게시	230/48.6	65/36.5	69/53.5	77/57.0	19/61.3
이용 지침	72/15.2	18/10.1	7/5.4	41/30.4	6/19.4
전자메일	61/12.9	19/10.7	8/6.2	25/18.5	9/29.0

473개 기관을 모수로 하고 있다. 홈페이지나 인트라넷을 활용하는 기관이 425개 기관(89.6%)으로 가장 많고, 팜플릿이나 전단지가 233개 기관(49.3%), 안내·게시가 230개 기관(48.6%)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방법에 중점을 두면서, 종전 방법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전문도서관이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 종류에 대해 대한 설명이다. <표 5>는 미리

설정된 24개의 자료 중에서, 각 기관이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자료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다. (복수 응답 가능). 연구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147개 기관(25.5%)으로 가장 많고, 행정자료가 137개 기관(23.7%), 통계가 117개 기관(20.3%)순이다. 이들 자료나 정보는 주로 모기관의 업무수행에 직접 연관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 중점수집자료(상위)(복수 응답 가능)(왼쪽:기관 수, 오른쪽:%) n=577

자료	기관 수/비율(%)
연구자료	147/25.5
행정자료	137/23.7
통계	117/20.3
향토자료	86/14.9
사사·연사	63/10.9

3.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 내용

3.1 조사 개요

전문도서관 사서가 수행하는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필자가 실시한 질문지 조사 결과의 일부를 소개한다. 이 조사에서는 일본 전문도서관의 직무 내용에 관한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특히 정보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22개 직무 내용을 설정했다. 그리고 일반 공개·한정 공개된 4종류, 즉 국가·독립행정법인,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 단체, 민간기업의 전문도서관을 대상으로 직무 내용별로 정리했다.

아래에서는 조사에 회답한 4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 내용별로 '실시하고 있다' 또는 '일부 실시하고 있다'고 회답한 기관수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본의 전문도서관 사서가 수행하는 직무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고자 한다.

3.2 조사 결과

〈표 6〉은 전문도서관 사서의 직무 내용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전문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의 실정을 감안해서, ① 자료·정보의 수집·조직화, ② 서비스 제공, ③ 이용자 지원의 3가지 항목을 설정해서 문헌조사로 파악할 수 있었던

표 6 ▶ 전문도서관원의 직무 내용의 실시 상황 n=451

	직무내용	순위	기관 수	비율
수집·조직화	(1)자료 선정	3	395	87.6%
	(2) 상용 DB, 전자저널의 선정	14	164	36.4%
	(3) 보존연한의 설정	7	324	71.8%
	(4) 시스템으로 목록 작성	2	409	90.7%
	(5) 내외의 자료 수집·관리	9	310	68.7%
제공	(6) 열람 서비스	1	449	99.6%
	(7) 대출·반납	6	380	84.3%
	(8) 자료·문헌 복사	5	391	86.7%
	(9) 자료 예약	10	257	57.0%
	(10) 참고봉사 업무	4	392	86.9%
	(11) 정보의 가공·분석	19	110	24.4%
	(12) 자료·정보의 검색 방법	20	91	20.2%
	(13) 색인·리스트	16	125	27.7%
	(14) 초록, 해제	22	36	8.0%
	(15) 이용안내, 신착안내	8	313	69.4%
	(16) 상호대차	11	223	49.4%
	(17) OPAC에서의 서지·소장정보의 제공	13	204	45.2%
	(18) 독자 콘텐츠·DB 작성	15	159	35.3%
	(19) 참조 DB 작성	21	81	18.0%
	(20) 자료의 전자화	17	116	25.7%
	(21) 신착자료안내의 제공·배포	12	206	45.7%
	지원 이용	(22) 사용방법의 교육·지도	18	112

직무 내용을 적용시켰다. 기관 수는 그 직무 내용을 '실시하고 있다' 또는 '일부 실시하고 있다'고 회답한 기관 수의 합계이다. 본고에서는 이후 이 합계 수를 '실시하고 있다'로 보고 기술한다.

'실시하고 있다' 라는 응답중 실시율이 높은 것은 다음 직무이다. '(6) 자료·정보의 열람 서비스'(99.6%), '(4) 도서관 시스템 등에 의한 자료의 목록 작성'(90.7%), '(10) 참고봉사 업무'(86.9%)이다. 이들 직무는 도서관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또한 종래형 서비스에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실시율이 낮은 직무는 다음과 같은 직무였다. '(19) 참조 데이터베이스의 작성'(18%), '(20) 기관내에서 생산된 자료의 전자화'(25.7%), '(18) 독자 콘텐츠·데이터베이스 작성'(35.3%)이었다. 이들 직무는 선진적인 직무일 뿐만 아니라 발신형 자료·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된다.

4. 일본 전문도서관의 현황 정리

본고에서는 『총람』에 근거한 데이터와 필자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일본 전문도서관의 현황을 소개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6가지 상황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일본의 전문도서관과 직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고 기관별로 개별 법률이나 규칙에 의해 설치되어 있다는 것, 둘째, 일본의 전문도서관은 어려운 경제 정세 하에 ICT 진전의 영향을 받아 점점 고도화되는 이용자의 요구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것, 셋째, 정보제공 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도서관 사서의 전문화 정도가 일본 전문도서관의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 넷째, 일본의 전문도서관 사서의 양성은 대학에서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취업 후 교육훈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는 것, 다섯째, 일본의 전문도서관은 직원 수(전임 4.4명), 평균 장서 수(약 65,000권), 연간 자료 및 데이터 구입비(약 54%의 기관이 300만 엔 이하)의 관점에서 대체적으로 소규모 기관이라는 점, 여섯째, 전문도서관 사서가 수행하는 직무는 종래형의 것이 많고, ICT를 활용한 것이 적다는 점이다.

5. 일본의 전문도서관의 미래

지금까지 기술해 온 일본 전문도서관의 현황에 근거해서, 미래 일본의 전문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전문도서관은 향후 ICT를 활용하여 중점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독자적인 콘텐츠나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 조직 내의 인트라넷에 제공하거나, 기관 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 등을 PDF화해서 웹사이트나 인트라넷에 올리거나 SNS나 SDI 서비스 등을 이용한 신착자료의 안내와 배포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전문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정보를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교육과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도서관이 주도해서 시설 이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도서나 논문의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장하고 있는 기본 참고자료에 대한 이용 안내를 하는 것이다.

셋째, 전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문도서관이 주도해서 특정 주제에 관한 도서

를 선택하여 요약을 첨부한 도서 박람회 개최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하여 모기관에 관한 데이터를 도표화하여 서비스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KSLA와의 교류를 통해 일본 전문도서관에 대한 발표와 그에 근거한 원고 집필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양국에서 전문도서관과 전문도서관 사서의 교류가 계속될 것을 희망한다.

● 참고 문헌

- [1] 전문도서관협의회 조사분석위원회편, <전문정보기관총람>, 2012년판, 전문도서관협의회, 2012, 770p.
- [2] 아오야기 에이지, '전문도서관 직원에 요구되는 지식·기술·정보 서비스 활동에 기초한 직무 내용 조사를 기초로', <도서관계>, Vo.65, No.5, 2014.1, p.292-307.
- [3] 아오야기 에이지, '공개형 전문도서관의 현상과 과제: 각종 조사 데이터를 중심으로', <비블로스-Biblos>, 전자화 60 호, 2013.5, p.2-6.
- [4] 빅데이터가 뭐지? <http://blog.uplus.co.kr/1431>
(<http://www.ndl.go.jp/jp/publication/biblos/2013/5/01.html>)

